

변화하는 시대, 다시 묻는 육아의 본질과 사회적 돌봄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육아는 정치, 철학, 가치, 문화의 교차점에 서 있으며, 여러 흐름이 얹혀 있다. 우리는 육아를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의 질문을 마주한다. ‘최선의 육아란 무엇일까?’

‘자녀 양육’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것은 1840년대이지만, ‘돌봄’이라는 의미의 육아는 서기 900년 이전에 등장한다. 지금 우리는 정보 혁명, 디지털 혁명에 이끌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새로운 혁명은 육아의 가치와 신념, 전제를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정보를 대량으로 복제하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현대 육아의 방식이 완전히 재편되었다. 부모의 목적을 위해 기술이 육아의 양상을 바꾸는 시대이다.

기술변화, 개인주의, 모성, 페미니즘 등은 육아를 변화시킨 중요한 줄기였다. 하지만, 육아 변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경제 단위의 변화이다. 산업혁명이전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편의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개념은 없었다. 남녀 모두 생산적인 가정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했고, 여성들은 아이를 기르면서 일을 병행했다. 산업혁명으로 재화를 창출하는 일이 집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본적인 경제 단위가 가구에서 개인, 즉 주로 남성 개인으로 이동했다. 결과적으로 모성 강조와 사회적 돌봄이 출현하였고, 이 변화는 여성에게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이것은 일과 삶이 하나였던 시대의 여성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문제이다.

이 시대의 가정과 여성 역할의 변화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페미니즘 역사학자들은 당시 가정 중심의 시대사조를 반(反)페미니즘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에, 경쟁과 개인주의로 가득한 시장경제 속에서도 가족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이것을 위한 공간, 즉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도 페미니즘의 한 부류로 존재했다. 자유 페미니즘과 돌봄 페미니즘이라는 이 두 관점은 20세기 중반까지 여성운동의 큰 흐름을 형성했다.

페미니즘은 처음부터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비쳐지지 않으면서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하려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일부 여성주의들은 여성적 가치를 통해 모성과의 조화를 시도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모성부활주의’로 조롱받기도 하였다. 20세기에 기술 전환의 시대를 거치며 돌봄 페미니즘은 점차 잊혀졌다. 돌봄 페

미니즘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으나, 1960년대 이후 돌봄 폐미니즘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자유 폐미니즘은 여성주의 논의의 지배당론이 되었다.

근래 부모에 의한 양육이 육아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진실이 묻히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제 모성에 의한 육아는 동력을 잃은 것일까?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있고, 여러 아기들이 주의를 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환경의 사회적 돌봄은 부모에게 양육 받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일부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멜라니아 필립스는 실증적 연구와 현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분야 연구자들이 특정한 진실을 환원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항변한다. 육아 논쟁의 이면에는 육아와 부부, 육아와 자녀, 보호주의 폐미니즘과 육아, 육아와 근로여건 등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오늘날 모성은 가족과 육아 제공자 간의 공동 육아 맥락에서 논의된다. 육아는 자녀 양육, 부모가 되는 것,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포괄한다. 오랫동안 사회적 육아, 즉 사회적 돌봄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사회적 돌봄이 가정의 돌봄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육아에 대한 공적 지원이 가족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비가족적인 육아 형태에 바람직하지 않은 막연한 신뢰를 부여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부모와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가 되거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완전한 의존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돌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육아 인식이 약화하는 것은 사회적 돌봄의 예상치 않은 결과이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와 국가 간의 책임과 권리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한다. 부모 육아와 사회적 돌봄의 적대적 관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시대는 이미 와 있다. 육아가 사회적 돌봄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육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통찰이 필요하다. 육아에서 모성과 부모 역할에 대한 가정과 개념은 모두 아동 보호와 성장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이제 모성에 기초한 육아 본질에 대한 미래적 개념이 아동 돌봄 체계의 적절성과 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때문에 육아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돌봄의 패러다임 안에서 의도성이나 무지에 의해 구조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돌봄이 부모 혹은 보호자에 의한 육아라는 구조물을 받혀 주는 비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아동이 현실세계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려면 믿을 수 있는 어른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하다. 한 아이의 모든 것은 매일 자기를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아이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템플릿이 된다. 하루 종일 돌보는 사람이 아이와 관계하는 방식은 아이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한 아이의 정체성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심하고 따뜻한 돌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육아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해한 사회적 돌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돌봄은 박탈의 영향을 바로잡으려는 가부장적 동기가 수반되지 않는 한 가족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이 아동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부모자녀 유대감을 침식하지 않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아닌 부모와 가족의 목적에 의해 육아의 기본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육아의 본질과 사회적 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과 재정 관련자, 연구자들은 사회적 돌봄에 부모 육아의 역할을 공유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돌봄 정책을 수립하면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부모 육아의 역할과 책임을 지원하는 것일지 아니면 훼손 가능성이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로 귀결되는 시대는 도덕과 가치의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 비용을 부여하고, 손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경제적 관점의 사고방식 때문에 사회적 돌봄이 공급 효율 원칙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미래를 열어줄 육아와 사회적 돌봄의 본질적인 조화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부모나 보호자 등에 의한 육아와 사회적 돌봄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혜택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지 않고 아동기 본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부모와 아동의 이해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동이 미래를 믿을 수 있도록 작은 편리와 이익 추구를 넘어 육아와 사회적 돌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